

국어 영역

제 1 교시

[1] 2011. 11. [32~36]
그레고리력 지문

안녕하세요. 첫 소재는 2011학년도 수능에 출제되었던 ‘그레고리력’ 지문입니다.

이 시험 당시 정말 수많은 학생들을 패닉에 빠뜨렸던 지문입니다. 체감난이도를 올리는 데에도 많은 역할을 했고, 바로 그 뒤에 있던 ‘두더지’ 지문도 더 어렵게 만든 주범도 이 지문이었지요.

이 지문 하나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비문학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하고 또 좋은 지문입니다.

작년에 멘토 활동을 하며 2013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수없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는 상식을 되찾아야 합니다.’

비문학도 ‘글’입니다.

‘글’

작가는 어떠한 의도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우리는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말로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유감스럽게도 그저 그게 ‘진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문을 읽고..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작가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아내고.. 자연스럽게 문제도 풀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수에 대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다 맞는 말인데 왜 ‘나’에겐 안 될까요? 다시 솔직하게,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안 ‘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머리로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겨우 그걸로 되냐?’
‘그건 이론적인 얘기일 뿐이고 실제론 달라’
‘그렇게 따지면 정말 교과서만 보면 다 되게?’

일단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점수가 안 나오던 학생들. 작가의 의도, ‘글’을 받아들이기 위한 시도조차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구나 알고 인정할 만한 보편적인 것’은 대부분 ‘추상적’입니다.

그렇기에 ‘어차피 쓸모없는 것’이라고 넘기는 학생들이 생깁니다. 곰곰이 고민해보고 적용해볼 생각은 안 하고.

어떤 학생들은 ‘누군가가 구체화해주길’ 바라고 구체화된 것을 익히려 듭니다.

그래서 자꾸 스킬은 생기고, 시중에 참고서들은 많아지고 문제 푸는 양은 늘어나고... 본인의 국어 점수만 그대로이고 쓸데없는 나머지 것들은 다 늘어납니다.

항상 국어 점수는 들쭉날쭉하고, 항상 불안하고. 공부를 해도 한 것 같지 않고... 공부를 안 해도 점수가 딱 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괜히 ‘국어는 감이다’ ‘국어는 원래 잘 하던 애들이..’ ‘국어는 해 봤자...’

하다하다 저런 ‘귀변’들까지 내놓습니다.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왜 ‘글’을 ‘글’로 볼 생각보다 다른 것들을 ‘배우려’ 드나요?

많이 나올 대답? 뻔합니다.

“그런 당연한 말은 웬지 점수에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서.”
“남들, 잘 하는 애들이 그렇게 하니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끔' 보이는 생각이지요.

'상식대로 살면 손해만 본다'

저도 가끔 공감할 때도 있습니다만, 저 생각은 '최소한' 아직 학교라는 틀 안에서, 이제 막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수험생들이 깨닫고 있어야 할 말은 아닙니다.

정말 백 번 양보해서 저 말이 '현실적'이라고 칩시다.
그럼 적어도 그렇게 공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선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상식대로, 당연하다고 알고 있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다른 방식으로 공부했다면?
어쨌거나 점수라도 잘 나오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다?

그럼 '이제라도' 상식대로 공부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또다시 엉뚱한 다른 방법들을 찾고 고민하고....

제가 쓸 앞으로의 글들은.. 그런 악순환, 정말 최악의 답답한 고리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글입니다.

"저는 정말 '글'을 이해하려 노력했는데도 안 되던데요ㅠㅠ"

이런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

역시 경험상... 그들 중 대부분은 '착각'하고 있거나, '연습 부족'인 경우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은 '연습 부족'이라고 본인의 상태를 '착각' 합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한 글이기도 합니다.
곰곰이 비교해 보면서 평가원의 지문들은, 글을 글답게 읽을 때에 제일 쉽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그렇게 쉽고 당연한' 것으로 어려운 지문은 어떻게 대비해요?'

이런 생각이 드는 학생이 있나요?

정말 맛있고 실력있는 식당에서는 양념과 조미료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재료 그 자체의 순수한 맛을 살려 요리하기 마련이지요.

무림의 고수도 칼 한 자루를 들고 싸웁니다. 칼, 총, 방패, 도끼.. 다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지요.

옛 말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기본'만으로는 어려운 문제까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실력이 없으니 '스킬'로 포장하고 치장하려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문이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핵심에 집착해야 합니다.

문제를 풀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평가원'이 내는 국어 영역 문제들은 대부분이

'핵심을 중심으로 문제에 접근할 때'

가장 자연스럽게 쉽게 풀립니다.

심지어 '내용 일치' 문제마저도 '핵심'을 중심으로 접근할 때에 가장 명쾌하고 정확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작년에, 재작년에도 똑같은 말들을 수없이 많이 해왔습니다.)

앞으로, 지문들을 통해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맘대로 오해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들이 핵심을 중심으로 접근할 때에 쉽게 풀린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가원 문제들 중 99%는 분명 '핵심'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훨! 씩! 유리합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시험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글'이라는 본질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것, '핵심'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어렵다고 아주 많이 많았던 2011학년도 수능의 그레고리력 지문을 통해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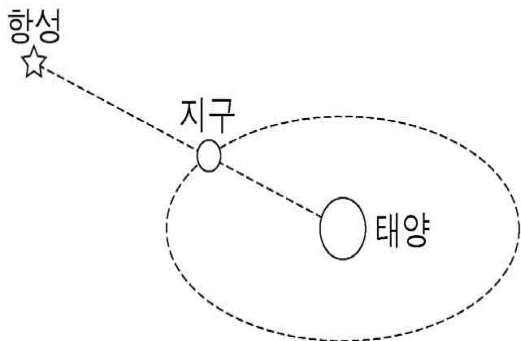
(2011학년도 수능 직후의 입시 사이트 게시판들을 찾아봐도 좋습니다. '선배'들이 느낀 '체감난이도'가 어떠했는지를.)

[32~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82년 10월 4일의 다음날이 1582년 10월 15일이 되었다. 10일이 사라지면서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교황청은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 이로써 ㉠ 그레고리력이 시행된 국가에서는 이듬해 춘분인 3월 21일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졌다. 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

그 전까지 유럽에서는 ㉡ 율리우스력이 사용되고 있었다. 카이사르가 제정한 태양력의 일종인 율리우스력은 제정 당시에 알려진 1년 길이의 평균값인 365일 6시간에 근거하여 평년은 365일,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은 366일로 정했다. 율리우스력의 4년은 실제보다 길었기에 절기는 조금씩 앞당겨져 16세기 후반에는 춘분이 3월 11일에 도래했다. 이것은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 볼 때,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그것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역법 개혁을 명령한 이유였다.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은 인물은 릴리우스였다. 그는 당시 천문학자들의 생각처럼 복잡한 천체 운동을 반영하여 역법을 고안하면 일반인들이 어려워할 것이라 보고, 율리우스력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무엇을 1년의 길이로 볼 것인가가 문제였다. 릴리우스는 반세기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의 공전 주기를 항성년을 1년으로 본 것을 알고 있었다.



A 항성년은 위의 그림처럼 태양과 지구와 어떤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그러나 릴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따라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을 창출하고자 했기에 항성년을 1년의 길이로 삼을 수 없었다. 그는 춘분과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 간격인 회귀년이 항성년보다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항성년과 회귀년의 차이는 춘분 때의 지구 위치가 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생긴다.

릴리우스는 이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 두고,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 놓은 알폰소 표에 제시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자고 했다. 그 값은 365일 5시간 49분 16초였고, 이 값을 채용하면 새 역법은 율리우스력보다 134년에 하루가 짧아지게 되어 있었다. 릴리우스는 연도가 4의 배수인 해를 ㉢ 윤년으로 삼아 하루를 더하는 율리우스력의 방식을 받아들여,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으로, 400의

배수인 해는 다시 윤년으로 하는 규칙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은 1만 년에 3일이 절기와 차이가 생기는 정도였다. 이리하여 그레고리력은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새 역법은 종교적 필요를 떠나 일상생활의 감각과도 잘 맞아서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3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점]

- ① 두 역법 사이의 10일의 오차는 조금씩 나누어 몇 년에 걸쳐 수정되었다.
- ② 과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법 개혁안이 권력에 의해 강제되었다.
- ③ 릴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역법 개혁안을 마련했다.
- ④ 릴리우스는 천문 현상의 원인 구명에 큰 관심을 가졌다.
- ⑤ 그레고리력이 선포된 시점에는 지동설이 지배적이었다.

33. 위 글과 <보기>를 함께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만든 역법인 음력에서는 30일과 29일이 든 달을 번갈아 써서, 평년은 한 해가 열두 달로 354일이다. 그런데 이것은 지구의 공전 주기와 많이 다르므로, 윤달을 추가하여 열세 달이 한 해가 되는 윤년을 대략 19년에 일곱 번씩 두게 된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역법을 만들고 대략 15일 간격의 24절기를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 놓음으로써 계절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역법을 '태음태양력'이라고 한다.

- ① 부활절을 정할 때는 음력처럼 달의 모양을 고려했군.
- ② 동서양 모두 역법을 만들기 위해 천체의 운동을 고려했군.
- ③ 서양의 태양력에서도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고려했군.
- ④ 그레고리력의 1년은 태음태양력의 열두 달과 일치하지 않는군.
- ⑤ 윤달이 첨가된 태음태양력의 윤년은 율리우스력의 윤년보다 길겠군.

34. ㉠과 ㉡을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서 서기 1700년은 모두 윤년이다.
- ② ㉠은 ㉡보다 더 정확한 관측치를 토대로 제정되었다.
- ③ ㉠을 쓰면 ㉡을 쓸 때보다 윤년이 더 자주 돌아온다.
- ④ ㉡은 ㉠보다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다.
- ⑤ ㉡은 ㉠보다 나중에 제정되었지만 더 보편적으로 쓰인다.

지문 분석

[32~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582년 10월 4일의 다음날이 1582년 10월 15일이 되었다. 10일이 사라지면서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교황청은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 이로써 ㉠ 그레고리력이 시행된 국가에서는 이듬해 춘분인 3월 21일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졌다. 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

→ 이제부터 한 문단씩, 함께 ‘생각’ 해보겠습니다.

“[32~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험지에서는 위와 같은 말을 합니다.

‘당연한 거잖아, 저게 뭐 별 거라고?’

네 맞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당연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냥 글을 잘 읽고 → 물음에 잘 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당연하다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것들을 시도합니다.

“지문 먼저 봐요? 문제 먼저 봐요?”

흔히들 하는 질문입니다. 고민해본 적 있지 않나요?

하나씩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글을 읽고, 그냥 답하면 될 뿐입니다.

일단, ‘굳이’ 저런 의문을 갖는 것부터가 사실 좀 이상한 겁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하는데 애써 다른 어떤 방법을 찾고 있는지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학생들은 또 답합니다.

‘좀 더 쉽게, 빨리 풀 수 있잖아요. 지문엔 정보가 많은데 그중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 먼저 보면 볼 게 좀 더 적어지고...’

마찬가지로 답답합니다.

그럼 만약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을 보는 게 낫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점수가 만족할 만큼 잘 나온다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도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점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글’이 뭔지, 뭐가 올바른 방법인지 알든 모르든 ‘점수’만 만족스럽게 나오면 장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글을 보는 학생들은 그것도 아닐 겁니다.

또한, 점수가 안 나와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기에 제 글까지 읽고 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시도해 봤는데 점수가 만족스럽지 않게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바꿀 생각도 안 합니다.

왜?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괜히 노력 탓으로 돌려버리고 맙니다.

그래놓곤 ‘노력해도 안 된다’며 자책하고, 시간은 더 투자하고 항상 불안정하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실 결론도 다양합니다. ‘국어는 해도 안 된다’ ‘국어는 감이 다’ 등 별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늘어놓지요. 후에 이런 속설들에 대해서도 하나씩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는 원인이 모두 문제 먼저 보기 때문이라는 건 아닙니다. 제 말의 ‘의도’를 그렇게 해석하셨다면 앞으로의 글들을 보셔도 별로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을 겁니다. 다른 이유들에 대해선 앞으로 천천히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럼 문제 먼저 보면 도움이 될 만한 건 하나도 없나요?’

거의 90%의 지문들, 절대 다수의 지문들은 그냥 글을 읽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간혹 문학에서 문제를 참조하는 게 ‘약간의 이득’이 있는 지문들이 있긴 합니다. 그 역시 어떤 것인지 후에 지문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문들은 지문 자체가 능동적으로 ‘말’을 합니다. 문제를 참고하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문학은 ‘글’입니다.

‘글’을 읽는다는 것은 ‘글을 쓴 작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역시 ‘당연한’ 말이지요?

그 당연한 과정을 따라간다면 국어 영역(국어)은 정말 쉽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 ‘상식을 되찾자’입니다.

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주제’

역시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나는 시험장에서, 정말 ‘문제’를 풀 때에 ‘주제’를 찾으려고 했던가?

뜬금없겠지만 지금 바로, 왼쪽 가슴에 손을 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 없이 바쁘기에 휘리릭 풀어버리고 말지요.

물론 그중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건 더 많고.

앞으로 비문학 지문을 소재로 드릴 말씀들 중 제일 중요한 말!

“지문을 읽으며 ‘결국 하고 싶은 말’을 찾고, 그것(주제)으로부터 문제에 접근한다.”

문제 풀이의 원칙입니다.

주제, 풀어 말하면 ‘글쓴이가 글을 쓴 목적’. 다시 말하면 ‘글에서 제일 중요한 것’, 다시 줄여 말하면! ‘핵! 심!’

모든 문제가 ‘핵심’으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한 회에 ‘많아야’ 한두 문제입니다. 핵심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충분히 익힌 후에 그런 능력을 기르면 됩니다.

참고로 ‘내용 일치’ 문제마저도 글의 핵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저 어렵고 복잡해 ‘보이니까’ 그렇지 않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생긴 게 복잡해 보인다고, 유명 강사나 참고서가 1:1대응으로 푼다고 해서 그게 최선의 접근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올 수능을 대비한 첫 글이라...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자꾸 여러 얘기들을 하게 되네요.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언컨대!!

국어 영역을 두고 ‘문제가 묻는 것을 지문에서 찾아서 1:1 대응시키는 것이다.’라는 주장은 국어 영역을 대하는 ‘제일 저급(低級)한 사고’입니다.

마치, 예를 들어 수리 영역 한 27번 문제쯤에 수열 문제로 ‘등차수열 a1, a2, a3’의 값을 주고 2000번째 항의 값을 구하라는 데 일일이 나열해보고 그중 2000번째를 찾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정 안 되면’ 그럼에도 맞히기 위해 써야하는 방법일 뿐, 시험장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시도’하는 것은 정말 ‘미친 짓’입니다.

항상! 핵심으로 먼저.

그럼 지문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문단

1582년 10월 4일의 다음날이 1582년 10월 15일이 되었다. 10일이 사라지면서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교황청은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 이로써 ㉠ 그레고리력이 시행된 국가에서는 이듬해 춘분인 3월 21일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졌다. 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

→ (아마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제 머리 속의 생각을 그대로 서술하는 것일 겁니다. 괜한 형식적인 틀 집어 치우고! 편하게 서술하겠습니다.)

첫 줄부터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진한 초록색 글자에 주목하며 읽으시면 됩니다.)

'10월 4일 다음날이 10월 15일이 되었네.. 잉?? 10일이나 건너뛰고??'

이런 생각이라도, 짚고 넘어가는 것과 그냥 넘어가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글의 '핵심'을 찾는 데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각 문단에서의 흐름을 파악하며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만드는 것. 그 하나의 흐름이 바로 '작가가 결국 하고 싶은 말, 즉 주제'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의 흐름'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그게 익숙해져야 비로소 점수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황청 얘기가 나오고.. 그레고리력이 나왔고. 아 아마 그레고리력이 주된 화제인가 보군. 그리고....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제정되었군'

첫 문단에서는 다른 것들보다 이 내용들이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레고리력'이라는 단어가 주된 화제일 것 같다는 느낌 정도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들었을 테고.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제정되었다는 것은?

방금 전의 그 '그레고리력'이 '제정된 목적'입니다.

'그레고리력'에 주목을 했다면 당연히 저 부분에도 시선이 머물러야만 합니다. 그게 '흐름'입니다.

2 문단

그 전까지 유럽에서는 ㉡ 율리우스력이 사용되고 있었다. 카이사르가 제정한 태양력의 일종인 율리우스력은 제정 당시에 알려진 1년 길이의 평균값인 365일 6시간에 근거하여 평년은 365일,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은 366일로 정했다. 율리우스력의 4년은 실제보다 길었기에 절기는 조금씩 앞당겨져 16세기 후반에는 춘분이 3월 11일에 도래했다. 이것은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 볼 때,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그것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역법 개혁을 명령한 이유였다.

→ '율리우스력. 그레고리력과 대조되는 개념인가 보군. 율리우스력→그레고리력. 그리고 쪽 넘어가고....'

넘어가려는데 마침. '1년 길이의 평균값인 365일 6시간.... 평년은 365일, 4년마다 366일..'

온갖 숫자들의 향연이 시작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는 서서히 패닉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과학기술 지문인데, 그림도 나와 있고 <보기> 딸린 문제도 2개나 있고... 수능인데 망하면 큰일 나는데.. 마침 시간도 없는데 32~36번대 문제... 숫자 많이 나와서 복잡해 보이고 점점 꼬이고 읽어도 읽은 게 아니요 아 큰일났다 πππ'

이 당시 실제 시험장에서 수능을 쳤던 수많은 학생들이 겪었을 생각입니다.

'나는 안 그래' 싶나요, 혹시?

시험장에서 저런 생각을 한 선배들은 미련해서 당한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복잡성'을 띄면 어렵다고 느끼는지, 몇 번대의 문제에 놓으면 체감 난이도가 높아질지 학생들의 심리적인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한 글을 읽는 데에 있어 어느 정도로 허술하게 공부하고 있는지, 얼마나 핵심을 찾으며 읽는 것이 미숙한지와 같은 우리들의 내용적인 약점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출제자의 명백한 의도에 걸려든 겁니다.

정말 글을 글답게 읽었다면, 시간은 다소 걸렸을 지라도 처참하게 틀리고 다음 지문도 날려버리는 '멘붕' 상태에 빠지진 않았을 겁니다. 다시 같이 제대로! 확인해 봅시다.

다시, 2 문단 이어서. (보기 편하시라고 다시 복사합니다.)

그 전까지 유럽에서는 ㉠ 율리우스력이 사용되고 있었다. 카이사르가 제정한 태양력의 일종인 율리우스력은 제정 당시에 알려진 1년 길이의 평균값인 365일 6시간에 근거하여 평년은 365일,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은 366일로 정했다. 율리우스력의 4년은 실제보다 길었기에 절기는 조금씩 앞당겨져 16세기 후반에는 춘분이 3월 11일에 도래했다. 이것은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 볼 때,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그것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역법 개혁을 명령한 이유였다.

→ ‘1년 길이의 평균값인 365일 6시간.... 평년은 365일, 4년마다 366일..’

과감히 건너뛰니다. 그냥 속 보고 지나칩니다.

숫자니까? 가 아니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문맥을, 흐름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궁극적인 것을.

예상해보건대 그레고리력에 관한 설명이 주제일 것 같고.. 제정된 목적은 확인 했고 그 이전에 사용되었던 대비된다고 예상되는 율리우스력도 확인 했고...

저 숫자들이 글의 ‘핵심’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레고리력에 대한 큼지막한 흐름 안에 끼워도 될까요?
아니기에 건너뛰는 겁니다.

쭈- 눈으로 대강 훑으며 넘어가다가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부터 다시 잘 읽기 시작합니다.

왜! 일까요?

지문 전체의 큰 흐름을 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절은? 그레고리력을 제정한 목적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 지키려고 그레고리력을 제정했지요. 앞의 흐름과 맞아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했고... 그런데 율리우스력은 그걸 못 지키게 되었고 그래서 그레고리력이 나왔다는 말이군. 아 결국 첫 문단의 연장이고 비슷한 말 하는 거구나. 다음 문단에서는? 그레고리력 제정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하면 자연스러운 것 같고.. 그게 아니어도 적어도 그레고리력에 대한 정보들을 제시하겠지.’

3 문단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은 인물은 릴리우스였다. 그는 당시 천문학자들의 생각처럼 복잡한 천체 운동을 반영하여 역법을 고안하면 일반인들이 어려워할 것이라 보고, 율리우스력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무엇을 1년의 길이로 볼 것인가가 문제였다. 릴리우스는 반세기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의 공전 주기인 항성년을 1년으로 본 것을 알고 있었다.

→ ‘아, 그레고리력을 제정한 인물에 대한 말이 나왔구나. 릴리우스네. 음... 무엇을 1년의 길이로 보는가가 관심사였군. 그런데 반세기 전 ‘항성년’이 기준이었던 말이 나오니까 아마 항성년을 기준으로 했다는 말이 나오거나 그와 대조되는 개념이 답이 되지 않을까? 다음 문단엔 그 얘기가 나오겠지.’

글을 읽을 때에는 이와 같이 문맥으로부터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 ‘앞으론 어떤 말이 나올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정보가 주어질 때마다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읽기가 아니라 ‘미리 뒤에 어떤 말이 쓰여 있을지’ 알고 읽는 능동적인 읽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가장 정확하게!! 통하는 글들이 평가원 기출이고, 그걸 읽어내는 것이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것의 의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출 문제는 하도 봐서 답이 그냥 떠오를 정도예요. 다른 거 뭐 할 거 없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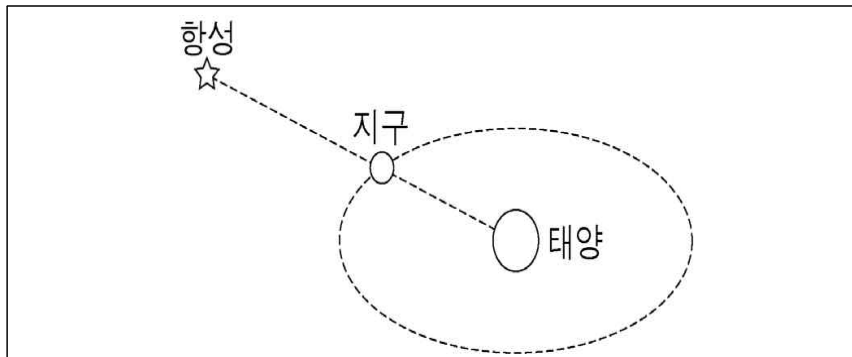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봤고 답과 답을 내는 과정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과 ‘기출 문제를 분석했다’는 전혀 별개, 다른 겁니다.

전자는 ‘그냥 많이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자연스러운 것’일 뿐이지요. 기출 문제를 열심히 분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역시 ‘착각’하고 있던 겁니다. 열심히 분석한 줄로.

마져 봅시다.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평가받던 이 지문. 문제까지 ‘핵심’을 중심으로 깔끔하게 푸는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4 문단



항성년은 위의 그림처럼 태양과 지구와 어떤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그러나 율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따라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을 창출하고자 했기에 항성년을 1년의 길이로 삼을 수 없었다. 그는 춘분과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 간격인 회귀년이 항성년보다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항성년과 회귀년의 차이는 춘분 때의 지구 위치가 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생긴다.

→ ‘항성년은 태양과 지구와 어떤 항성이 일직선에.....?’

또 시작이 됐습니다. 앞에 나온 숫자들의 향연이나 마찬가지로 아닌가요?

안 읽히기 시작하고... 위에서 이미 패닉에 빠진 학생들,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장 본질적인 목적’에만 집착하시기 바랍니다.

항성년의 정의... 지금의 문맥상 중요할 리 없습니다. 가볍게 눈으로만 훑으며 제끼면 됩니다.

‘아, 항성년은 1년의 길이로 삼을 수 없었군. 위 문단에서 예상했던 것 중... 항성년과 반대되는 어떤 개념이 나오겠네. 여기서? 회귀년이겠군. 그리고.. 회귀년이 항성년보다 짧다니까 밑줄 그어야겠다. 음... 그리고 이 문단은 끝.’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회귀년이 항성년보다 짧다’ 에는 왜 주목하라는 걸까요?

앞으로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수능에서는, 평가원에서는 어떤 A와 B라는 개념을 제시한다면 그 각각의 정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은 A와 B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관계’란 기본적으로는 공통점, 차이점부터 시작하지요.

글, 최소한 평가원 지문을 읽을 때에 어떤 개념들 사이의 ‘관계’가 나온다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관계’를 문제화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5 문단

율리우스는 이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 두고,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 놓은 알폰소 표에 제시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자고 했다. 그 값은 365일 5시간 49분 16초였고, 이 값을 채용하면 새 역법은 율리우스력보다 134년에 하루가 짧아지게 되어 있었다. 율리우스는 연도가 4의 배수인 해를 ③ 윤년으로 삼아 하루를 더하는 율리우스력의 방식을 받아들여,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으로, 400의 배수인 해는 다시 윤년으로 하는 규칙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은 1만 년에 3일이 절기와 차이가 생기는 정도였다. 이리하여 그레고리력은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새 역법은 종교적 필요를 떠나 일상생활의 감각과도 잘 맞아서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들, 머릿속에 정리된 그 흐름을 꼭 끌고 내려오셔야 합니다.

‘음.. 아, 아니나 다를까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 까지 밑줄 그어야 되겠군.’

이 전의 두 문단에서 우리는 ‘무엇을 1년의 기준으로 할 지’가 궁금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고, 지금 ‘정확하게’ 그 답을 제시했으므로 아주 자연스럽게 눈길이 머물러야 합니다.

‘그 값은 365일 5시간 49분 16초... 근데 134년에 하루가 짧아져...?’

느낌이 오지요. 이는 ‘가장 정확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세부 설명입니다. 큼지막한 지문 전체의 흐름에 낄 게 아니란 말입니다. 현혹될 것 없이 이젠 눈으로만 훑어 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뒤의 내용을 보니 100의 배수는 평년, 400의 배수는 윤년.. 점점 더 세부적인 설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앞 문단을 읽어올 때 ‘타겟’을 설정해 놓고 읽어야 저런 것에 말리지 않습니다. 그 타겟이란 ‘흐름’, ‘핵심’을 말하는 것이며 ‘평소에’ 충분히 훈련되어있지 않다면 시험장에서 억지로 의식해봤자 잘 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아. 그래서 그레고리력은 지금까지도 잘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군요.

이어서 문제도 해결해 봅시다. ‘핵심’을 바탕으로.

문제 분석

지금껏 말씀드렸던 설명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해결해 보고 읽으셔야 합니다.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제 글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3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점]

- ① 두 역법 사이의 10일의 오차는 조금씩 나누어 몇 년에 걸쳐 수정되었다.
- ② 과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법 개혁안이 권력에 의해 강제 되었다.
- ③ 릴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역법 개혁안을 마련했다.
- ④ 릴리우스는 천문 현상의 원인 구명에 큰 관심을 가졌다.
- ⑤ 그레고리력이 선포된 시점에는 지동설이 지배적이었다.



① ‘글의 흐름’ ‘핵심’으로부터 생각해 봅시다. 1번 선지는 글의, 작가의 주된 관심거리였나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단 넘어갑니다.

(평가원은 거의 대부분, ‘핵심’을 바탕으로 ‘답인 선지’를 구성합니다. 내용 일치 문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Q. 이렇게 넘어가도 되나요?

A. 확인하려면 내용 하나하나 찾아서 대응해 보셔도 됩니다. 물론 저는 ‘굳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긴 힘들습니다. ‘주제’, ‘핵심’의 ‘의미’가 뭔가요?

좀 더 본질적으로 글을 읽고,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하다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일단.. 좀 더 해봅시다. 글 하나로 깨닫긴 약간 어려울 수 있지요.

적어도 하나하나 대응해서 푼다면 ‘복잡하다’, ‘시간 부족하다’ ‘그래서 문제가 더럽다’ 이 따위의 ‘망언’은 하면 안 됩니다.

본인 스스로 어렵게 꼬아놓고 풀고 있으면서 평가원을 욕하면 안 됩니다.

② 역시 ‘글의 흐름’을 바탕으로 꼼꼼이 생각해 봅시다. 그레고리력이 어떻게 제정되었나요? 부활절을 지킬 수 없어서. 과학계가 반발했는데 강제로 진행되었나요? 미친 소립니다. ‘흐름’과 ‘핵심’을 생각합시다.

③ 릴리우스. 누구니까? 그레고리력 제정한 인물. 당연히 이 지문의 ‘흐름’상 중요 인물입니다.

교회의 요구에 부응하여라는 말은 뭘니까? ‘부활절 지키려고’ 역법 개혁안을 마련했다. 이걸요? ‘그레고리력 제정했다.’는 말일 뿐입니다.

글 전체의 흐름과 핵심에 비춰 생각해 보세요.

정확하게. 그냥 답입니다.

답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Q. ④, ⑤번 선지는 안 보고 넘어가나요?

A. 안 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에이 그래도 흑시.....’라고 생각하고 다음 선지를 보기 시작하니까 점수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학생들, 절대 자기 자신을 못 믿습니다.

왜죠? 이렇게 글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수능 전, ‘자신을 믿어라’ 라는 얘기 많이들 듣습니다. 믿는다고 믿지만 결과는 매번 똑같습니다.

많이들 착각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건, 맹목적인, 종교적인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글을 글답게 이해했을 때 확신이 들 수밖에 없는, 본인의 ‘실력’에 대한 ‘논리적인 믿음’이어야 합니다.

저와 공부한 학생들. 당연히 넘어갑니다. ‘답’임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고, ‘굳이’ 4, 5번 선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죠? 3번 선지가 정확하게 ‘글 전체의 핵심적인 큰 흐름’ 안에 맞아 떨어지는 말이니깐요.

33. 위 글과 <보기>를 함께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만든 역법인 음력에서는 30일과 29일이 든 달을 번갈아 써서, 평년은 한 해가 열두 달로 354일이다. 그런데 이것은 지구의 공전 주기와 많이 다르므로, 윤달을 추가하여 열세 달이 한 해가 되는 윤년을 대략 19년에 일곱 번씩 두게 된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역법을 만들고 대략 15일 간격의 24절기를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 놓음으로써 계절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역법을 '태음태양력'이라고 한다.

- ① 부활절을 정할 때는 음력처럼 달의 모양을 고려했군.
- ② 동서양 모두 역법을 만들기 위해 천체의 운동을 고려했군.
- ③ 서양의 태양력에서도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고려했군.
- ④ 그레고리력의 1년은 태음태양력의 열두 달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⑤ 윤달이 첨가된 태음태양력의 윤년은 율리우스력의 윤년보다 길겠군.

↓ <보기>를 봅시다.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만든 역법인 음력에서는.... 30일과 29일을 번갈아.. 한 해가 열두 달인데 354일... 윤달을 추가하여 열세 달이 한 해..?'

느낌이 옵니다. 넘어가야 할 것 같은. 그래도 또 혹시나 싶어 꼼꼼이 고민하며 읽어봅니다. (그냥 눈으로 '가볍게' 훑어 넘겨야 합니다.)

그런데, 19년에 일곱 번씩 든답니다. 19년에 7번. '굳이' 저렇게 복잡하게, 눈에 안 읽히는 숫자들로. 비록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에 큰 의미를 둘 수 없습니다.

'국어', '국어'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19년에 일곱 번이라는 말을 보고도 '이해'하려 든다면 글 읽는 관점이 잘못된 겁니다. 제발 건너뛰라고 지문이, 보기가 수도 없이 외쳐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리이러하게 만드는데 태음태양력이라고 하는군. 보기에 별 내용 없네..'

이 정도 해석하고, 지문에서의 흐름과 핵심, 보기를 통해 선지로 접근해 봅시다.

① 부활절을 정하는 애깁니다. 그냥 제칠 수는 없지요. 화제 자체가 핵심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지문의 핵심을 떠올리고, 흐름을 떠올립니다. 부활절 정할 때 어떻게 했나요?

글쎄요. 그럼 부활절이 어떻게 정의되었나요?

아. 그걸 찾아야겠군요. 그 얘기가 어디에 써 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읽을 때에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 볼 때..' 라는 부분부터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글의 흐름이 그 부분을 지나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억지로 답에 끼워 맞춘 설명인가요, 과연?

음력처럼 달의 모양 고려 했군요.

② 동양? 보기에서. OK, 서양? 지문에서. OK.

(단순한, 그냥 누구나 풀 수 있는 선지일 뿐입니다.)

③ '서양의 태양력..?'

아. 머리를 써 봅시다.

지문에서. 우리가 본 '역법'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그레고리력, 율리우스력. 그 외엔? 모릅니다. '큰 흐름'에 다른 역법은 없었습니다.

근데 태양력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워 보인다고 그냥 포기할 게 아니라.. 생각을 해 봅시다, 제발.

'자연스러운 생각'은 태양력이 그레고리력이나 율리우스력 중 하나일 것이라고 유추하는 겁니다. 왜? 지문에 나온 역법은 그 두 개 뿐이니까요. 참과 거짓을 증명하려면 그렇게 생각하고 시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는? 역시나 아주 당연히, 그레고리력과 율리우스력 각각의 '정의' 부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지요. '정의'로 돌아가서 봅시다.

두 번째 문단에, 정말 기가 막히게 그제야

“카이사르가 제정한 태양력의 일종인 율리우스력은 제정 당시에 알려진..”

이라는 구절이 보입니다.

만약, 제가 지문 해설을 할 때에 애초에 ‘아, 율리우스력은 태양력의 일종이지요.’라고 살짝 언급하고 문제 풀이에서 ‘지문에서 봤었지요?’라고 말한다면.

정말 제가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저 말은, ‘핵심’을 기준으로, 지문의 흐름을 찾으며 읽어 나갈 때에 눈에 들어올 말이 아닙니다.

처음 글을 읽을 때에 저 부분이 중요하다고 느껴졌다면 글을 잘못 읽은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3번 선지를 해결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평가원은 ‘정말 놀랍게도 아주 자연스럽게’ 저 부분으로 시선을 유도합니다. 그저 글이 말하는 대로, 문제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쯤 보면, 더 안 봐도 사실 답이 3번일 거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멋진 유도를 해 놓고 답이 다른 선지면 정말 매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 봅시다.

서양의 태양력, 즉 율리우스력에서도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고려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율리우스력이라고 치환해두고 바라보면 어떤가요?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소리입니다. 왜죠?

만약 율리우스력이 보름달 주기를 고려해서 만들어 졌다면? 부활절을 잘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레고리력이 굳이 제정될 이유도 없습니다.

즉, 저 선지가 맞다면 이 지문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 집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이제!!

지문의 핵심으로 답이 구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나요?
지문의 핵심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서술입니다.
이 지문이 정말, 더럽고 치사한 지문인가요?

이렇게 3번 선지를 해결했음에도 과연 4, 5번 선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말입니다. 지문 내용과, 문제, 선지 모두 1:1 대응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건 ‘기본’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렇게 해결하려 하면? 당연히 시간 쫄라! 오래 걸립니다. ‘의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질’도 아니고 ‘뉘’도 아니고.

정말 개인적인 말을 이런 글 사이에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정말 놀란 것이, 시중에 국어 영역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이 지문은 버려도 되는 어렵기만 한 쓰레기 지문’이라고 치부하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종종 하더라는 겁니다.

학생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생각을 바꿔나가면 됩니다. (사실 우리들이 흔히 더럽다고 말하는 지문들의 대부분이 이런 좋은 지문입니다. 다만 ‘생각’하기를 귀찮아하기에 더럽다고 느낄 뿐이지요.)

그래도 최소한 ‘글’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안 되면 차라리 모른다고 말을 할 것이지, 모른다고 말한 마디 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렵다고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지.

제가 그 분들을 평가할 위치에 있진 않습니다만 학생들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평가원 문제가 더럽다, 이상하다, 잘못 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근거가 어떻든, 그 주체가 누구든, 무.조.건. 그 사람이 틀린 겁니다. 설령 평가원이 정말 ‘틀리게’ 공부하는 걸 의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욕할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시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상식’이 어떤 건지, 이 글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35, 36번 문제는 그냥 해결하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누구나 맞힐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아까 항성년, 회귀년과 관련해서 ‘관계’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35번이 정확하게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냥 차분히 해결해 보세요.

비문학 한 지문을 가지고 정말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좋은 지문입니다.

완벽히 이해되고 익숙해질 때까지 무한 반복하시길 바랍니다.